

“전주시 교통문제 해결책 시급”

전주시의회 오평근 의원이 극심한 교통정체를 겪고 있는 전주시 교통문제 해결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평근 시의원(평화2동)은 7일 제33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주시 전역에서 주말과 출퇴근시간이면 극심한 교통정체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상습 교통정체 구역에 대한 교통문제 해결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특히 “최근 전주역 앞은



시의회 오평근 의원, 5분 발언 통해 방안 촉구

백제대로와 동부간선대로가 만나는 지점으로 몰려드는 관광객과 두 곳의 결혼식장을 찾은 차량이 뒤엉켜 도로를 점령한 상태인데다 최근 마중길 공사가 시작되면서 좁아진 도로 탓에 이 일대가 심한 차량정체로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제·정읍 진입로인 효자동 박물관 앞과 우전교 앞에 있는 결혼식장, 전주C~서부우회도로 중간에 위치한 전주 덕진경찰서 앞에 있는 결혼식장 또한 주말만 되면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교통마비 현상이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 교통정보 팀 자료 중 주요교차로 교통량 상황을 보면, 종합경기장, 꽃밭정, 차량등록사업소, 서곡광장, 영성고사거리 등을 포함, 전주시 전역의 65개소의 교차로에서 극심한 혼잡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백제로 통일광장 일대 일평균 교통량은 9만9843대, 종합경기장 교차로는 11만1940대로 극심한 교통정체 구간으로 손꼽힌다.

오 의원은 “평화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교통영향평가에서는 교통수요 증가에 따른 각 분석대상 교차로 신호

주기에 대한 최적화 방안이나, 사업지 주변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들을 개선해 수립할 것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실은 효천지구개발이 완료되면 모악로, 구이로, 장승배기로, 백제대로까지 교통정체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전주시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의원은 “병목현상이 심한 교차로 신호체계개선 등 다급한 문제 해결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통행특성을 반영한 전주시 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과 함께 행정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김진옥 전주시의원, 농산물 피해대책 마련 촉구

전주시의회 김진옥 의원이 여름철 폭염에 따른 지역 농산물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진옥 시의원(송천2동·팔복동·조촌동·동산동)은 7일 제33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197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폭염으로 지역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농산물 피해 농가를 위한 지원 대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집중된 농작물 피해 상황만 봐도 인삼과 울무 등 일반 작물피해 사례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지만, 폭염으로 인한 손실은 농어업재해보험 지원대상이 되지 않아 실령 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을지라도 손실을 보장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지역농가의 어려움을 전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 기부행렬 줄이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주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지원 하는 ‘달에게 보내는 엄마의 마음 사업’에 참여하는 기부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7일 전주시에 따르면 우리여행사 박용한 사장 부인은 이날 전주시청을 방문해 저소득가정 청소년기 여학생을 위한 생리대 지원에 써달라며 1000만원을 기탁했다. 또, 송천2동 주민자치위원회가 100만원, 전주청년리더사업단이 200만원의 후원금을 각각 기탁했다.

한명옥 전주청년리더사업단 회장은 “여학생들이 생리대를 구입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으로 알게 됐다”며 “남자로서 몰랐던 부분이었으며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전주청년리더사업단 회원들의 뜻을 모아 후원을 하게 됐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후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와 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난 6월부터 ‘달에게 보내는 엄마의 마음’을 추진해왔다. /김영재 기자



‘삼례 나리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 재심 ‘삼례 나리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재심 첫 공판이 7일 전주 덕진구 전주지방법원 2호법정에서 열린 가운데 재심청구인 최모(37)씨 등 3명과 박준영 변호사가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가족형 보험사기단 일당 검거

운전자를 바꿔가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보험사기단 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7일 고의로 사고를 내고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최모(36)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최씨의 범행을 도운 아내 서모(33·여)씨와 친척과 지인 2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선배와 그랜저 무등록 대포차량을 타고 지난해 9월 7일 오전 4시께 익산시 함열읍 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고가의 외제차량을 일부로 들이받아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씨는 이날 인적이 뜸한 새벽시간 CCTV가 없는 교차로에서 자신의 지인에게 외제차량을 타고 대기하도록 시킨 뒤 고의로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수법으로 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최근까지 운전 미숙을 가장해 차량을 몰고 빠뜨리고, 도로시설물을 들이받는 등 상습적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2억3000만원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중고차 달리와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고를 자주 내면 보험사에서 의심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아내와 친척, 선·후배, 지인 등을 사고차량 운전자로 둔갑시켜 보험금을 타냈다.

최씨 일당의 범행은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탈미가 잡혔다. 경찰은 보험사에 선배가 운전했다고 주장한 그랜저 승용차에 남아 있던 머리카락의 유전자 정보가 최씨와 일치하는 데 의심을 품고 수사를 통해 이들의 범죄 사실을 밝혀냈다.

/김영재 기자

김주년 의원 “원스톱 장례서비스 구축 필요”

포화상태 이른 승화원 대체

전주시의회 김주년 의원이 원스톱 장례서비스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주년 시의원(평화2동)은 7일 제 33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주 승화원이 낙후된 시설과 부족한 면적으로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며 시민들의 편리한 장례서비스 이용을 위한 원스

톱 장례서비스 구축 방안을 주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주통계연보와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고령자 통계에서 전주시는 매일 약 8.5명이 사망하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 인구의 11.4%인 7만5000명에 달한다.

특히 전북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전남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하는 등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 사회 진입 추세에 발맞춰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장사시설 정비 및 공원을 위해 전방위로 국비확보를 추진, 2012년 ‘장원시립상복공원’이 조성된데 이어 2013년 ‘울산 하늘공원’과 ‘용인 평온의 숲’, 지난해는 전북지역에서도 고창, 김제, 부안, 정읍이 함께 투자한 ‘서남권 추모공원’ 등이 최신 시설과 자연 친화적인 장묘시설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 노송동 ‘기부천사쉼터’ 지역발전사업 우수사례 선정

대통령직속 지방위 평가서

전주시 노송동에 16년째 이어지고 있는 ‘얼굴없는 천사’의 선행을 기려 조성된 기부천사쉼터가 대한민국 도시재생사업의 우수모델로 평가됐다.

전주시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주관한 ‘2016년 지역발전사업’ 평가에서 전주시의 노송동주민센터 옆 기부천사쉼터 조성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개인표창(김중성 주무관)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기부천사쉼터는 지난 2000년부터 16년째 이어지고 있는 ‘얼굴없는 천사’의 선행으로 ‘천사마을’로 자리 잡은 노송동의 지역정체성을 널리 알리고, 나눔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기부금을 두고 가던 장소를 시민들의 기부와 나눔의 공간으로 확대하기 위해 총사업비 4억5000만원이 투입돼 현 노송동주민센터 옆에 조성됐다.

이번 평가에서 전주시는 현장평가에 나선 지역발전위원회 평가위원들로부터 기부천사쉼터 조성사례가 지역자신인 ‘얼굴없는 천사’의 기부문화화소

와 공동체 활동을 연계시켜 도시재생 사업을 구성하는 등 사업기획부분에서 다른 지자체와 차별성이 있다는 극찬을 받았다.

또한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을 마련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 점과 지역공동체 및 중간지원조직과 협력해 사업의 지속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체계를 마련한 점이 호평을 받았다.

시는 기부천사쉼터에서 ‘제1회 희망을 주는 나무 키움 행사’를 통해 지역공동체와 학교 등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모여 나눔의 문화를 실천하기도 했다. 행사에 참여한 온두레공동체에서는 체험·판매 수익금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으며, 공동체 상품을 구매한 시민들에게는 희망열매를 선물해 스스로 소원을 적어 쉼터 벽면에 설치된 희망을 주는 나무에 달 수 있도록 하는 행사도 진행하는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기도 했다.

/김영재 기자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현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정 및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학술/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체육증진
문화단체 및 지역민들의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